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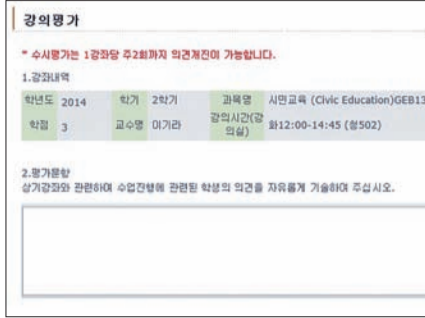
평가 참여율 평균 1%대 수준 ... 교수-학생 간 소통이 중요

수시 강의평가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수시 강의평가의 학생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지원과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서울캠)의 지난 세 학기 수시강의평가 참여율은 2013년 1학기 0.84%, 2학기 1.27%, 2014년 1학기 1.3%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역시 2013년 1학기 1.2%, 2학기 1.4%, 2014년 1학기 1.7%의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율 평균은 서울캠 1.13% 국제캠 1.43%에 그쳤다. 양 캠퍼스의 참여율 모두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학생들의 생각을 듣



수시 강의평가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기 위해 참여율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대체로 보였다. 서정자(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강의를 수강하는지 궁금하다”며 “학생들이 적극 참여해줬으면 좋겠지만, 평가를 부탁해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수시 강의평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양 캠퍼스 학사지원과 측은 참여율이 낮다고 수시 강의평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학사지원과 관계자는 “익명으로 강의의 개선점을 교수님께 전달하고 싶은 경우에 수시 강의평가를 이용한다”며 “수시 강의평가 제도는 학생이 교수님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

는 “강의의 총평을 내리고 다음 학기 강의의 질을 높이는 등의 기능은 정기 강의평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시 강의평가의 도입목적은 감안해 보면, 현재의 수시 강의평가는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정기 강의평가만으로는 학기 중 수업 내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2011년 수시 강의평가가 도입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시 강의평가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수시 강의평가 내용을 교수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체계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수가 상시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수시 강의평가에 대

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병희(정보전신신소재공학 2011) 군은 “수시 강의평가에 대해 몰랐다”며 “수업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삼켰다”고 말했다. 박대용(테권도학 2014) 군 또한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수시 강의평가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다양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시 강의평가 역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지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학기 수시 강의평가는 이달 28일까지이다. 우리학교 종합정보시스템(https://khuis.khu.ac.kr)에 접속해 ‘수업/성적/상담’란으로 들어가 강의에 대한 의견을 서술할 수 있다.

총장-학생간 공청회... 이사회부터 공간문제까지

총장과의 대화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박기윤 기자 kyoon7230@khu.ac.kr

조인원 총장과 학생 간 공청회가 지난 19일 네오누리관에서 열렸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조인원 총장과 총학생회 박이랑(사학 2008) 회장간의 면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참석 학생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소 학생들이 궁금해 하던 ▲이사회 정원에 대한 문제 ▲학내 소수자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 ▲정문 앞 건물의 외부기업 입주에 대한 문제 ▲늘어나는 유학생 수에 비해 줄고 있는 지원에 대한 문제 등이 논의됐다.

가장 먼저 논의된 학생개방이사 대해 조 총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학생 또는 학생회에서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학생이 이사로 참여하기 보다는 참관할 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신분 문제로 투표권은 해외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교육부에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한 상태지만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학내 비정규직 중 대표적으로 청소노동자 고용불안 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대학에서도 검토를 했다. 우리사회 관행에 따라 외주 업체에서 우리대학에 파견 나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



분들을 법인에서 회사를 설립해 경희대에 근로하도록 하고 싶다. 그러나 노동계 문화나 정서 같은 것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정문 앞 신축 건물의 외부기업 입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학교 암 전문 병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편의시설을 짓는 것”이라며 “대학문화에 맞지 않는 것은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전달했고 앞으로 학생-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식 질문시간에 이어서 진행된 참가자들의 자유질문 시간에도 열린 질의가 오갔다. 정경대학 학생회장 후보로 나선 권에하(언론정보학 2010) 양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너무 낙후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경대 신축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당장 신축 진행이 불

가능하다면 특별예산을 편성할 것, 마스터플랜 건물 완공 이후 정경대 학생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약속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선거 기간 동안 ‘정경대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712명의 서명 용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총장은 “과 특성을 고려해 실험실습을 많이 하는 이공계열 대학과 한의과 대학 등이 문과대나 정경대에 앞서 개선돼야 한다”며 “한 번에 착공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정 단과대학을 차별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아직은 재원계획 수립 중에 있지만 10층 내외의 글로벌 타워의 신축이 결정되면 문과대와 정경대의 신청을 통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논문 표절... 대학, '학위는 취소 않기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심사 결과

권은오 기자 typhoon11@khu.ac.kr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특정 부분을 인용표기 없이 서술한 것은 논문 표절에 해당한다. 그러나 1998년 논문 작성 당시에는 본교에 연구윤리관 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과는 달랐고 출처표기가 문제된 사례연구 부분을 피조사자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외하더라도 논문의 구조나 결론에 문제가 되지 않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박사학위는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박사학위 논문(정부간 갈등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표절에 대한 우리학

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13일 내린 결론이다. 표절은 사실이지만, 표절 부분을 제외하면 논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학위취소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경희대의 입장 전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수원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측이 이인수 총장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이 ▲출처 미표기, ▲원 저작물 구조 표절 ▲자기논문 표절 등의 문제가 있다며, 우리학교에 확인을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1998년 2월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해당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수원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측은 학위 취소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수원대 홈페이지에 '총장 행정학 박사 이인수'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중앙도서관 12월 문화프로그램 안내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는 12월 겨울을 맞아 다음과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대학의 문화적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초청작가 박종일 사진전시회'와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초청작가 프로그램, 박종일 작가 사진전시회'
 - 내 용 : 백두산 및 독도 사진 작품 전시
 - 일 자 : 2014. 12. (월) ~ 12. (월)
 -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제13회 음악회'
 - 내 용 :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공연
 - 일 자 : 2014. 12. (화) 12:00 ~ 13:00
 -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제12회 전시회'
 - 내 용 : 중앙사진동아리 파인아트 34회 정기 전시
 - 일 자 : 2014. 12. (화) ~ 12. (목)
 -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제12회 전시회'
 - 내 용 : 서수원(도서관) 서예작품 전시
 - 일 자 : 2014. 12. (금) ~ 12. (토)
 -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도서관 재능기부 문화프로그램,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상설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 비롯하여 학생 개인이나 집단은 공연(음악, 연극 등), 전시회(그림, 사진, 도예 등) 등을 통해 재능을 자유로이 펼쳐 보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신청 방법 : 이진우(☎ : 031-201-3221, E-mail : asqa@khu.ac.kr)
- 날짜 : 신청 접수 후 기존 행사 날짜와 조정
- 행사 내용 : 자유 형식으로 하되 타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 범위(예: 연주, 전시)
- 행사 위치 : 도서관 1층 로비
- 공연 시간 : 12시 ~ 13시 사이에서 조정
- ※ 전시회의 경우 상의 후 일정 조정 가능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2014학년도 2학기 정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4학년도 2학기 '정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정기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강의평가 결과는 수업의 질 개선과 신규과목 개설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4.12.01(월)~12.26(금)
- 대 상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 성적 열람 및 공식 기간 : 2014.12.31(수)~2015.01.05(월)
- 정기 강의평가 실시 여부 따른 성적 조회 기간
 - 강의평가 실시 학생 : 1차 - 2014.12.15(월)~2014.12.24(수)
2차 - 2014.12.27(토)~2014.12.30(화)
※ 성적입력이 완료된 강좌에 한함
 -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 2014.12.31(수)~2015.01.05(월)
- 정기 강의평가 실시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담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할 강좌를 클릭
 - 화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유의견)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단추 클릭(저장 후 수정 불가)
 - 강좌목록 화면에서 평가를 마친 과목이 [미실시]에서 [실시]로 변경된 것 확인
 -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강좌를 클릭하여 조회
 -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
 -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실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
 -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의 강의평가 담당자에게 문의

※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교무처 학사지원과

Young Choreographer's Dance Project 2014

11월,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주관
Young Choreographer's Dance Project 2014를 개최합니다.
경희가족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희대학교 무용학부장

공연 안내

일 시	2014. 11. 24(월) ~ 11. 25(화) 3pm
장 소	경희대학교 무용학부관 1층 다목적홀(102호)
프로그램	2014. 11. 24(월) 15:00 2학년 창작공연 2014. 11. 25(화) 15:00 3학년 창작공연

경희대학교 경희교육포럼

I 행사 개요

- 행사명 : 경희교육포럼 '경희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고, 내일을 그리다.'
- 목 적 : 교수, 학생, 직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경희교육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경희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향후 교육방향을 탐색함으로써 경희교육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 일 시 : 2014. 11. 26. (수) 14:00 ~ 17:00
- 장 소 : 경희대학교 청운관 지하 1층(B117호)
- 주 관 : 경희대학교 교육사업추진단

II 행사 주요 일정

14:00~14:10	인사말	지은림 단장 (교육사업추진단)
1부 주제발표	경희교육 성찰	사회 : 김혜경 교수 (Teaching Fellow, 디지털콘텐츠학과)
14:10~14:30	대학의 목표와 경희교육	박희재 교수 (사회학과)
14:30~14:50	경희융합교육의 오늘과 내일	허균영 교수 (융합교육지원센터장, 원자력공학과)
14:50~15:00	질의응답 및 토론	
15:00~15:10	휴식	
2부 라운드테이블	구성원이 바라보는 경희교육	사회 : 윤성이 교수 (정치외교학과)
15:10~15:20	경희교육의 정체성	김중백 교수 (사회학과)
15:20~15:30	원로교수가 바라본 경희교육	백운식 교수 (전자·전파공학과)
15:30~15:40	신진교수가 바라본 경희교육	지상현 교수 (지리학과)
15:40~15:50	학생이 고민하는 경희교육	권은혜 학생 (정치외교학과)
15:50~16:00	학생이 경험한 경희교육	김재영 학생 (국제학과)
16:00~16:30	자유토론	
16:30~17:00	총장과 함께 경희교육의 내일을 묻는다	조인원 총장

경희대학교 교육사업추진단